

통신기기 산업 침체의 끝은 어디인가

하태정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닷컴기업들의 몰락, 이동 통신 분야의 투자 지연, 경기 하락 등에서 촉발된 통신기기 산업의 침체는 3세대 서비스 상용화에 의한 신규 투자수로 발생과 통신기기 회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의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닷컴기업들의 몰락, 이동 통신 분야의 투자 지연, 경기 하락 등에서 촉발된 통신기기 산업의 침체는 3세대 서비스 상용화에 의한 신규 투자수로 발생과 통신기기 회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의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통신기기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Lucent, Nortel, Cisco 등 주요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나스닥을 비롯한 각국 주식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통신기기 산업의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통신기기 산업의 화려했던 경력

세계 통신기기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격한 보급 확대, 광통신망 등 인프라의 확충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여기서 통신기기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시스템, 교환 전송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디지털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말기 및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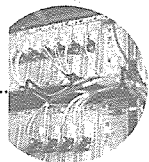
장비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단말기 분야는 1996~2000년 기간 동안 연평균 5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통신기기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스템장비 분야 역시 같은 기간중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우터, 스위치(switch) 등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장비 시장 역시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그에 따른 데이터 통신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90년대 중반 이후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전체 유선 통신기기 시장규모도 지난 1997년의 1,160억 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1,78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세계 통신기기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어 주요 통신기기 회사 역시 동 기간 동안 매출과 수익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90년 중반 이후 Lucent, Nortel, Cisco, Ericsson, Nokia 등으로 대표되는 통신기기 회사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15~50%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을 구가해 왔다. 특히 Lucent는 지난 1996~1999년 기간동안 매출액 규모와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대의 통신기기 회사로 자리잡았다. 같은 기간 동안 Cisco와 Nokia 또한 매출면에서 연평균 50%에 근접하는 고속성장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통신기기 회사들의 승승장구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폭등으로 이어졌다.

Lucent의 주가는 1996년 말 10달러 내외에서 1999년



말에는 8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Nortel의 주가 또한 1996년 말 5달러 수준에서 2000년 9월에는 89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침체의 늪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육일승천하던 통신기기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동안 통신기기 산업을 선도해 왔던 Lucent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 큰 폭의 매출 급감과 함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이후, 금년 2분기까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매년 40% 이상의 매출성장을 지속해 왔던 Cisco 역시 작년 4분기부터 성장이 둔화되면서 영업이익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Nokia와 함께 유럽 통신기기시장을 이끌고 있는 Ericsson 또한 금년 1분기 들어 30억 달러 수준의 적자로 돌아섰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작년 한해 동안 매출액 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캐나다의 Nortel은 금년 2분기에만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을 포함하여 176억 달러라는 통신기기 산업에서 유례가 없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통신기기 회사들의 실적악화는 곧바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 1999년 말 80달러에 육박하던 Lucent의 주가는 현재 6달러 내외로 추락하였고, 2000년 중 최고 89달러를 기록하였던 Nortel의 주가는 현재 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때 82달러에 이르던 Cisco의 주가는 현재 20달러 내외로 크게 떨어져 있다.

통신기기 회사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계속되는 주가 하락은 통신기기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광통신용 전송기기 분야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Nortel은 비록 작년 한해 동안 모든 분기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3분기까지만 해도 Nortel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Nortel의 주가는 4분기에 들어서면서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라우터,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Cisco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까지도 꾸준한 매출 증가와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Cisco의 주가는 3분기부터 큰 폭으로 하

락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같은 주식시장에서의 통신기기업체들의 주가하락은 통신기기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수년 동안 통신기기 시장의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했던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통신기기 산업 침체 배경

그렇다면 통신기기 회사들의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와 주가 폭락은 어떠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는가. 무엇보다도 통신기기 산업 내부의 수요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통신기기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무선통신 분야와 인터넷 관련 장비 부문에서의 수요격감은 통신기기 회사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수요감소 원인은 이동통신 서비스사업자들이 처한 환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2세대 서비스 방식에 3세대 서비스 기반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3세대 서비스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3세대 단말기 및 시스템 장비 등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나 3세대 단말기 개발 지연 등 기술측면의 미흡으로 3세대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유럽의 경우는 3세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경매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차세대 서비스의



사업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3세대 서비스를 위한 신규 시스템 장비 투자가 지연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무선 단말기 및 시스템 장비 등 무선통신 분야에서 예상되었던 신규 투자수요가 감소 내지 지연되게 된 것이다.

인터넷 관련 장비의 수요도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붐과 미국의 통신법 개정에 따른 통신 및 방송 산업의 규제완화는 기존 통신 회사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동시에 신규 통신 회사들의 대규모 시장진입을 유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규모의 경쟁적 투자를 단행하였고, 라우터, 스위치, 허브 등의 광통신기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은 통신서비스 인프라의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서비스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신규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닷컴 기업들의 몰락은 네트워크 장비의 최대 수요처 중의 하나가 붕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통신산업 내부적 요인에서 촉발된 IT산업의 침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경기 하락을 가져왔다. 특히, 고성장 저인플레이션으로 상징되는 미국 신경제의 하강 추세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자산가치 감소로 이어져 통신산업을 비롯한 IT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 호황을 전제로 통신 기업들이 수행한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는 경기가 하락하면서 과잉 투자 문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통신기기 사업자들의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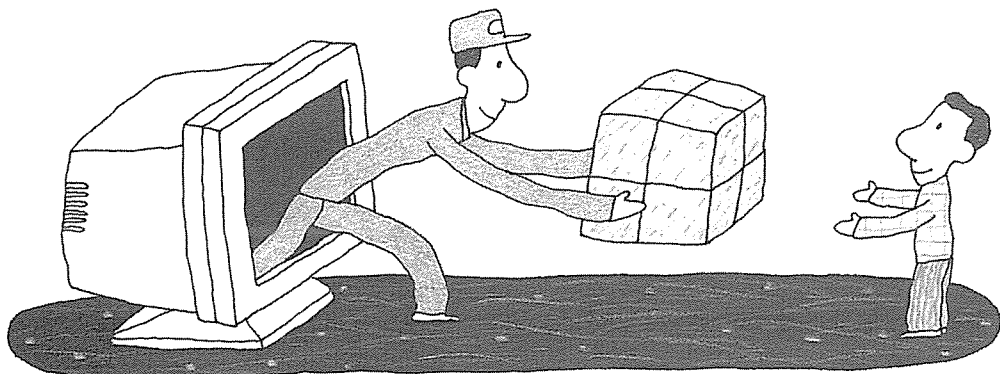
세계 주요 통신기기 사업자들은 현재의 통신시장 침체와 과잉투자라는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과감한 인력 및 투자 감축, 비핵심사업의 분사 및 매각, 경영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Lucent는 비핵심사업 분야에서의 1만명 인력 감축, 장비 제조 부문의 아웃소싱, 2001년 말까지 운영자금 20억 달러 축소, 65억 달러의 부채 한도액 설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Lucent가 이처럼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과거 전화교환기 사업 중심에서 광통신 분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주도권 상실, 생산 구매 판매 등의 각 분야에서 IP(Internet Protocol)화 지연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무리한 벤더 파이낸싱에 따른 불량채권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던 Nortel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큰 폭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비핵심사업부문 매각, 1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 성장 및 투자 계획 수정 등의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들에 대한 벤더 파이낸싱도 상당 부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년 연속 매출액 규모 면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던 Ericsson은 올 초에 실적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주력제





품군 중의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기의 생산 중단 및 아웃소싱, 대규모 감원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Ericsson은 자사의 핵심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시장점유율 및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업 인수 합병의 대명사로 한때 시가 총액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던 Cisco 역시 당면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Cisco의 사업전략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신생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Cisco의 주가는 더 이상 인수 합병의 연료가 충분치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Cisco는 자사의 핵심 사업 분야인 고성능 라우터 시장에서 신생 기업인 Juniper Networks에 밀리기 시작하였고, 통신기기 시장의 주력 분야로 떠오른 광통신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3%에 그치면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Cisco는 올 1분기에 창사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고 영업 이익 역시 1억 달러 이하로 격감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Cisco는 지난 4월에 라우터장비 생산의 일부를 중단하고 8천명 수준의 대량의 인원 감축을 발표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M&A와 벤더 파이낸싱을 재고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야 회복될 듯

현재 통신기기 시장에 질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언제 걷히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통신기기 시장의 침체 원인과 통신기기 관련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면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금의 통신기기 산업 침체의 배경에는 통신 서비스 시장으로부터의 수요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무선통신 기기에 대한 신규 투자수요 발생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 시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결국 무선통신 기기 분야의 신규 수요는 2003년을 전후하여 상용화가 예상되는 3세대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2002년 하반기에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선 통신기기에 대한 추가적 신규 수요는 서비스 업체들의 기존의 과잉 투자가 해소되었을 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닷컴기업들의 몰락이 인터넷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선 통신기기 시장의 수요는 멀지 않은 시기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 회복 시점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주요 통신기기 회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통신기기 시장의 과잉 투자 및 과잉 설비 문제 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통신기기 시장의 수급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업들이 비핵심사업 부문에 대한 분사 및 매각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의한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의 위기는 통신 서비스 기업들의 투자 회복 여부와 통신기기 사업자들의 구조 조정 강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